

송년모임 대신 신사옥 홈 커밍(Home-Coming)!

사우회와 MBC는 해마다 12월에 가졌던 ‘송년모임’을 올해는 생략하는 대신 11월29일(토)에 모든 사우회원들이 상암동 신사옥을 견학하는 행사를 갖기로 했다. ‘신사옥 견학’과 ‘송년모임’ 두 가지 행사를 모두 실시하기에는 경비 문제와 함께 MBC측의 연말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사무처에는 “신사옥을 언제쯤 견학할 수 있느냐?”는 회원들의 문의 전화가 수없이 걸려왔다. MBC는 지난 10월, ‘상암동 신사옥 견학 초청장’을 회원들 가정으로 보냈으며 현재까지 약 600여명의 회원이 참가를 신청했다. 신사옥 견학은 오전 11:00부터인데 참가를 신청한 회원들은 당일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출구’로 나와 MBC 셔틀버스를 타면 된다(셔틀버스는 오전 10:00부터 11:00까지 운행). 이날 견학에 참가한 회원들에게는 2015년도 사우회 회원수첩과 함께 MBC에서 마련한 선물과 MBC다이어리를 나누어 드릴 예정이다.

사우회 회장단 상암동 신사옥 견학

김수량 회장과 사우회 회장단(부회장-감사)은 10월1일(수) MBC임원진과 김윤섭 신사옥 건설국장의 안내로 한 시간여에 걸쳐 상암동 신사옥을 견학했다. 회장단이 상암동 신사옥을 공식 견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량 회장은 “훌륭하게 잘 지은 건물을 보니 MBC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임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상암시대 개막을 계기로 부디 영광의 선두주자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안광한 사장은 “여의도와 상암동 시대를 확실하게 구분해 시대변화에 맞는 조직문화를 재정립” 하겠으며 “MBC를 글로벌 콘텐츠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둑대회, 김현철, 이상욱 회원 우승



10월29일(수)에 열린 가을철 바둑대회에서 김현철(편제), 이상욱(관리) 회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김현철 회원은 A조(아마 5단~5급) 결승전에서 박준하(관리) 회원을 물리치고 봄철대회에 이어 연속 우승을 차지했으며 B조(6급 이하)에서는 이상욱 회원이 이창호(기술) 회원을 이기고

2012년 가을철 바둑대회 이후 2년 만에 다시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번 바둑대회에는 A조에 16명, B조에 15명이 출전했다.

골프대회, 김연두 회원 우승



9월30일(화) 진천 에머슨cc에서 열린 가을철 사우회 골프대회에서 김연두(관리) 회원이 우승, 청결미(10Kg)와 우승 트로피를 받았다. 준우승은 강동균(편제), 근접상은 권태섭(기술) 회원이 차지했으며 행운상은 백하현(관리), 감투상은 박수부(업무) 회원에게 돌아

갔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시도한 챔피언組(봄철대회 상위성적 4강, 이명수-이현규-정경석-이동한)대결에서는 스코어가 예상보다 저조한 가운데 이현규(보도) 회원이 우승했다. 이번 골프대회에 iMBC(사장 허연회)에서 참가자 선물과 입상자 상품을, 흥국화재보험에서 골프공 10박스를 협찬했으며 봄철대회 우승자인 이동한 회원이 우승 트로피를 제작-기증해 회원들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낚시대회, 송재선 회원 1등



10월10일(금) 김포 봉성리 수로에서 열린 가을철 낚시대회에서 송재선(업무) 회원이 23cm짜리 붕어를 잡아 1등을 차지하는 실력을 과시했다. 2등은 18.5cm 붕어를 잡은 홍진표(관리) 회원, 3등은 18cm 붕어를 잡은 강창우(기술) 회원이다. 행운상은 34cm짜리 메기를 잡은 권오용(편제) 회원이며 흥국화재보험에서 점심을 협찬했다.

등산대회, 북한산 둘레길서 가을정취 만끽



가을철 등산대회가 10월22일(수) 북한산 둘레길 제5구간 ‘명상의 길’과 정릉계곡에서 김수량 회장을 비롯한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실시됐다. 날씨는 쾌청했고 공기는 청량했으며 형형색색으로 단장한 단풍은 한 폭의 수채화였다. 출발 직전 남의균(관리) 회원이 컨디션 난조로 집으로

돌아간 것을 빼고는 79명 전원이 건강하게 6.7Km 코스를 완주하면서 만산홍엽의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보도부문의 이선호-김동한-신영철 회원들이 처음 참석해 선배 회원들과 추억을 되새기고 정담을 나눴다.

컬러 회원수첩 발행용 사진 보내주세요

회원수첩에 실릴 컬러 인물사진(최근에 촬영한 반명함판) 1매를 보내주세요. 사진은 내년 5월까지 수집하게 되지만 가

급적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살고있는 회원들께서는 자녀들에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게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실 곳은 (jhkim5051@hanmail.net)입니다.

TV채널에
새로움이 **플러스**된다



MBC every1

MBC SPORTS+

MBC Drama

MBC MUSIC

MBC Queen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여의도동) / 02-368-2500 / www.mbcplus.com

회원 문화탐방, 대관령 삼양목장-오대산 월정사



가을철 사우회 문화탐방 행사는 10월16일 (목) 대관령 삼양목장과 오대산 월정사에서 실시됐다. 이번 문화탐방은 라디오PD 출신 모임인 <인사동클럽>과 여자아나운서 출신 모임인 <초록회> <한문공부동호회>회원들을 초청했다. 초록회에서는 임국희 회원을 비롯해서 박찬순-노영인-정영희-김재영 회원등 5명이 참석해 지금까지의 문화탐방 중 가장 많은 여성회원이 참석하는 기록을 세웠다.

제1회 3社 사우회 바둑대회 열려



퇴직 방송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반상(盤上)의 기량을 겨룬 제1회 3社 사우회 바둑대회가 10월14일(화) 여의도 송천기원에서 열려 SBS사우회 대표로 출전한 고장석(편제) 회원이 우승했다. 고장석 회원은 최고위전 결승전에서 KBS사우회 대표 최판원선수를 접전 끝에 이겼다. MBC사우회 대표로 출전한 한박무(보도) 회원은 준결승 진출에 만족해야 했고 이진섭(편제) 회원은 예선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제1회 3社 사우회 바둑대회는 KBS가 주관해 실시했으며 내년 제2회 대회는 MBC사우회가 주관한다.

12월부터 소학(小學)공부-신입회원 모집

한문동호회(훈장 이견세)는 12월부터 새롭게 소학(小學)을 공부하기로 하고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소학은 조선시대 선비 자제들의 필독서로서 8세가 되면 누구나 배웠는데 소학의 예절교육은 대학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의 기본이 되며, 예기와 논어 등 각종 경전과 역대 사료를 수집하여 편집하였다. 소학은 초학자의 한문교재로서 배우기 쉽고 내용이 철학과 역사를 아울러서 훌륭하다고 하겠다.

문기회 새 회장에 이재은 회원



문화방송기자회(문기회)는 9월18일 정례모임에서 이재은 회원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 회장은 1977년 기자 공채 11기 (카메라기자 1기)로 입사해 파리 특파원과 카메라 부국장, 뉴스를 추진팀장(국장)을 거쳐 2005년부터 3년간 충주MBC 사장을 역임했다. 부회장에는 조기양 회원, 총무에는 양윤모 회원이 선임됐다. 문기회는 또 각 期 대표 9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위원은 이재은 회장 (당연직)과 김철호-이선호-조항민-하동근-배대운-고대석-이상룡-윤영무 회원 등 9명이다.

바둑클럽 회장에 고영일 회원



바둑클럽 새 회장에 고영일(업무) 회원이 선임됐다. 고영일 회장은 2008년 사우회 가을철 바둑대회 A조에서 우승을 차지한 2급 실력의 바둑 애호가다. 고 신임회장은 10월1일 바둑클럽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겸한 상견례를 가졌으며 10월 14일(화)에 열린 3社 사우회 바둑대회에 참석해서 MBC사우회 대표선수들을 격려하고 KBS, SBS사우회 임원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방송기자클럽 창립 25주년 기념식

한국방송기자클럽(회장 양영철)은 10월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 새누리당 대표,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와 방송계 인사, 역대 방송기자클럽 회장,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양영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방송기자클럽이 앞으로도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며 국민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방송기자클럽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3분기 BJC 보도상을 수여하는 한편 방송기자클럽 회원들을 위한 각종 경품 행사도 가졌다.

|알림|

사우회보 새 편집위원 윤홍섭-박민정 사우회 이사



사우회보 새 편집위원에 윤홍섭(보도) 사우회 이사와 박민정(ANN) 이사가 선임됐다. 김승환(보도), 임주완(ANN) 전 편집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사퇴했다.

사우회보, 2015년 1월부터 8면으로 발행

사우회와 회원들 간의 소식과 정보를 매개하는 'MBC 사우회보'가 2015년 1월15일에 발행되는 제27호부터 2면을 늘려 8면으로 발행됩니다. 2009년 10월15일에 창간호를 발행한 사우회보는 2012년 7월15일의 12호까지는 3개월 간격으로 1년에 4차례 6면 발행을 해왔습니다. 이후 9월15일에 발행한 13호부터 2개월에 한 번씩 발행하고 대신 면수를 4면으로 줄였는데, 더

많은 정보를 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김수량 회장의 제안에 따라 올해 1월15일에 발행한 제21호부터 다시 면수를 6면으로 늘려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사우회보가 8면으로 증면되면 더 많은 소식과 정보가 실릴 수 있지만 그만큼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원들이 알고 계시는 다른 회원들의 동정을 비롯해서, 살아가는 이야기, 해외 또는 국내 여행기, 모임, 행사, 기타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 원 동 정



박근숙(보도)

10월8일(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BJC)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BJC 창설 멤버로 1~2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BJC의 초석을 다지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곽성문(보도)

9월30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제2대 사장에 취임했다. 곽 사장은 제17대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구, 남구)을 역임했다.



진현숙(편제)

9월26일 MBC 자회사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보직 호선에서 MBC 플레이비 대표이사 사장에 재선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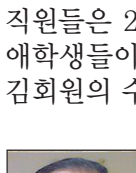
임병찬(전주)

10월31일, 회고록 「역사의 망루에 서서」를 출간했다. 지난 50년을 언론인으로 살아온 경험을 살려 '열정으로 올곧게 한 우물을 파면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후배들에게 주기 위해 책을 썼다고 한다.



김상욱(편제)

제6회 <시각장애학생 미술작품 초대전>을 10월21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갤러리에서 가졌다.



김수량 회장을 비롯한 사무처 임직원들은 21일 전시회장을 찾아 장애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감상하고 김회원의 수고와 봉사를 격려했다.



박기병(관리)

11월4일,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14년도 대한언론상 시상식

에서 자유언론 창달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박홍영(편제)

11월 22일~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테너 '호세 카레라스'와 '캐슬린 김'(뉴욕 메트로폴리탄 프림마돈나)의 공연을 연출한다. 주제는 'for Love'이며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연한다. 박회원은 2011년 소프라노 조수미의 제야콘서트, 2012년 소프라노 신영옥의 제야콘서트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각각 연출한 공연 연출 전문가다.



차인태(ANN)

평통 이북5도 지역회의 부의장으로 11월 6일 이북5도청에서, '국민적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김동길 교수가 「하나 된 국론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자」를 주제로 강연했다.



류철수(관리)

최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류원종(柳沅宗)으로 이름을 바꿨다.



김영일(보도)

iKNN 대표이사 9월30일, MBC 스포츠 PD 시절을 포함해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정리한 자서전<가을에는 부산에서 만납시다>를 출간했다.



김현철(미주)

김현철기자의 미국 통신 '이래도 미국을 믿을래?'를 펴냈다. 1974년 이후 미국에서 줄곧 언론인으로 살아온 저자는 이 책에서, '미국과 관련한 모든 질문이 왜 한국에서 불온한 신념으로 취급 받았는지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썼다.



경.조사

■ 팔손 ■

오승룡(기술)12/5 변대수(관리)12/10 배성룡(업무)1/1 성하권(편제)1/5
박경식(편제)1/6 염덕수(미주)1/10 최영달(대구)1/20 백중석(편제)1/22
한백수(기술)1/22 오두영(편제)1/25 최원두(보도)1/25

■ 고희 ■

이한수(편제)12/10 윤 수(편제)12/29 김채영(ANN)1/8 서정호(대구)1/9
노영인(편제)1/17 권윤성(기술)1/19 차효석(대전)1/25 장명호(편제)1/30

■ 회갑 ■

이용우(관리)12/11 한용규(기술)12/23 황인뢰(편제)12/28 이영우(편제)12/29
송재중(보도)1/3 전재철(보도)1/14 정 규(관리)1/14 류재영(편제)1/15
김준수(기술)1/19 신영철(보도)1/27 신견옥(관리)1/31

회원/ 회비관리

■ 평생회비 ■

이원표(관리)9/12 조한건(관리)9/19 양운모(보도)9/29 조학동(기술)9/29
박보은(업무)10/14 채규태(편제)10/15 서제우(편제)10/15 정호식(편제)10/17
홍성권(기술)10/23 고연도(편제)10/24 이운하(편제)10/27

■ 연회비 ■

9월 : 김문기(03~18,80세납부끝) 김영재(13~15) 김중세(14~15) 김종창(14~15)
김준규(14) 노홍식(14) 문정철(13~17) 박창복(10~14) 신명현(14) 염재용
(15) 이상혁(15) 이은춘(08~13,80세납부끝) 임영규(13~14) 조동근(13~14)
채규익 (14~15) 황진욱(12~14)
10월 : 김관영(14) 김윤영(10~14) 김철영(14) 박문식(14) 석종현(14) 송영수
(14~15) 이명수(15) 장정기(06~12) 장효상(14) 조춘희(14) 최희태(10~14)

■ 신규입회 ■

高鍊棹(편제) 010-8577-7653 031-812-0217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18, 209-1003 (주엽동, 강선마을2단지)
金哲泳(편제) 02-387-0333 은평구 응암로 295, 1301호 (응암동, 서강스카이빌 2차)
朴寶恩(업무) 010-2360-9193 031-889-4193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7번길60, 805-702 (죽전동, 도담마을주공A)
徐濟雨(편제) 010-9105-1391 02-3662-5506
강서구 공항대로75길 30, 102-105 (염창동, 삼정그린코아)
梁潤模(보도) 010-5289-1891 02-2606-1416
강서구 강서로 266, 113-201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A)
李雲夏(편제) 010-7794-1911 02-303-8849
은평구 은평터널로 39-2, 102호 (수색동)
李元杓(관리) 010-5496-1521 02-354-8856
은평구 서오릉로21길 36, 104-1004 (구산동, 갈현현대A)
鄭湖植(편제) 010-9105-1203 /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B-705 (여의도동, 수정A)
趙學東(기술) 010-4007-1405 054-278-7593
포항시 남구 지곡로 294, 216-503 (지곡동, 삼성효자그린A)
蔡奎泰(편제) 010-3741-6438 02-725-6779
종로구 자하문로5길 42 현대빌라 302호 (필운동)
洪性權(기술) 010-5227-3119 / 구로구 신도림로 16, 104-402 (신도림동, 대림A)

■ 결혼 ■

김현철(편제)차남 10/4 박정근(편제)장남10/12 강효복(관리)아들10/18
임영택(편제)장녀 10/18 백하현(관리) 딸 10/18 류상철(편제) 딸 10/19
박선영(보도)아들 10/19 박복만(편제)장남10/25 박종규(기술)장남10/25
김용철(보도)딸 11/1 강영석(기술)아들 11/22 정길용(보도)차남11/22
한박무(보도)장남11/22 정광조(관리)장남 12/6 손원록(관리) 장녀 12/6
이준희(보도)장남12/7

■ 부음 ■

김태정(관리)시부상9/13 윤권중(기술)부인상10/10 이명수(춘천)장인상10/12
김호준(보도)부친상10/14 백성원(관리)장인상10/14 강현식(편제)모친상11/1
김준수(기술)부친상11/1 김진희(편제)모친상11/5

전화/주소 변경

특별 : 신정후 강남구 자곡로 101, 616-1501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
편제 : 강동균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108번길 8 (판교동)
곽영범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10, 103-305 (대방동, 대림A)
김관영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43번길 32-2, 104-404 (공세동, 벽산블루밍)
김종창 구로구 개봉로12길 29 (개봉동)
김해원 010-5419-3347
손동룡 마포구 마포대로 195, 307-202 (마포 래미안푸르지오A)
이결범 광명시 하안로 320, 1014-807(하안동, 고층주공A)
이오기 010-5349-3385
파주시 한빛로 70, 514-702 (야당동, 캐슬&칸타빌)
최규철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395번길 54
표찬일 010-4675-2714
보도 : 김승한 파주시 파평면 화석정로126번길 85
김흥기 010-8835-9492
신형창 010-5537-5144
이재은 010-5289-9863
장효상 김포시 김포한강2로 362, 609-602 (장기동, 청송마을중흥S클래스)
정충성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2길 63, 103-902 (목동, 건영A)
ANN : 정영희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3, 205-702 (정자동, 한솔마을LG아파트)
기술 : 김인홍 010-3715-9158
김준원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6, 104-1901 (용두동, 두산위브A)
석남수 010-2599-4741, 02-903-4741
조위식 강동구 양재대로84길 21, 323-403 (둔촌동)
주용국 서초구 청계산로7길 43, 511-1001 (신원동, 서초포레스타5단지)
최희태 010-5234-3629
업무 : 맹광호 010-4788-5320
관리 : 류원중 동해시 청운1길 29, 26-502 (동화동, 대동A)
박정인 강서구 마곡서로 133, 712-1203 (마곡동, 마곡엠밸리)
서동식 010-6324-7201
대전시 유성구 지족로 240, 506-1304 (지족동, 해량숲마을)
이방근 010-3796-0320
이소진 010-4890-4256
이용재 010-3794-9648
홍춘표 여주시 도예로 83-36, 102-1105 (모학동, 오드카운티)
대구 : 서정호 대구시 남구 현충로 221 (대명동, 서정호철학관)

TV보다 더 큰 세상, iMBC

iMBC는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MBC와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멀티미디어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며 뉴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의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폭넓은 콘텐츠 수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영화, 게임, 음악, 교육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iMBC.

새로운 생각과 과감한 도전으로 세상을 향한 넓은 창이 되었습니다.

TALK

미니

이포터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55 (상암동 문화방송미디어센터 10층) T.02-2105-1100 www.imbc.com **iMBC**

이 사람

박용찬(미주)



금년 봄 「아나운서 박용찬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박용찬(미주) 회원의 방송 인생 스토리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2년제 초급대학에 다니던 시절, KBS 아나운서 시험을 쳤다가 두 번이나 낙방한 뒤, 낙방 이유를 알고자 당시 임택근 아나운서실장을 찾아갔다가 학력이 걸림돌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왜 응시자격을 고졸 이상으로 공고했느냐”고 임실장을 매섭게 몰아부친 얘기와,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학사편입으로 대학을 마친 뒤 기어이 기독교방송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고 3년 후에는 부산MBC 아나운서를 거쳐 목포MBC 개국 요원으로, 다시 부산MBC-TV PD로, 그 후 서울MBC 라디오 PD와 MD를 거쳐 원주MBC 방송부장으로 옮기는 등 그야말로 파란만장의 연속이다.

그가 이렇듯 전전(轉轉)하게 된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겠지만 스스로 옳다고 생각되면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밀어붙이는 그의 ‘독심’ 때문이기도 했다. 일례로, 그가 방송부장으로 일하던 원주MBC의 당시 사장은 대통령과 대구사범 동기인 교사 출신으로 방송의 문외한인지라 방송에 관하여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적당한 타협’을 모르는 그의 성격상 결론은 不問可知, 어느 날 느닷없이 해임되고 만다. 37살의 박용찬은 ‘살인이라는 걸 이런 경우에 저지르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만큼 좌절감이 컸지만 그는 극한처방 대신 원주 시내를 달리는 택시기사로 변모하는 독심을 보인다. 택시를 모는 동안 반말을 던지는 손님과 떡살잡이를 하여

독심으로 일군 워싱턴 미주방송(KBC)

파출소까지 갔다가 그를 알아 본 순경에게서 거수경을 받은 일화,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를 내서 승객을 죽일 뻔한 얘기 등은 드라마로 치면 겉가지 얘기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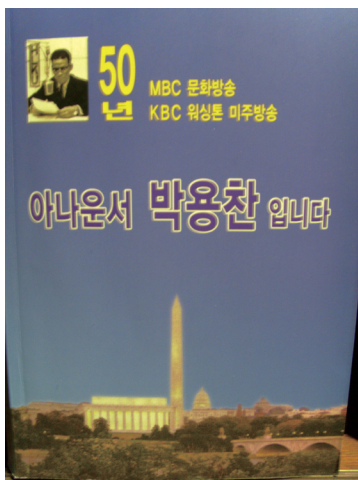
1978년 3월, “죽을 때까지 이놈의 나라에 다시 오나봐라.” 원한에 사무친 한 마디를 남기고 그는 2년1남 가족들과 미국 이민 길에 오른다.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던 그의 아내가, 한국에 이대로 있다가는 자칫 빚 나갈 수도 있는 그의 앞날이 걱정돼 이민을 서둘렀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워싱턴 델레스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어 한마디 못하고 지리에도 서툰 가장의 심사가 어떠했을지. 목사님 소개로 겨우 취직한 세탁소에서 서툰 일습씨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병원을 청소하는 아내의 일을 돕느라 조금 늦게 집에 도착했더니 아이들 셋이 방에다 열쇠를 두고 나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두 시간째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얘기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찡하다. 배터리 공장의 기술직, 고속도로 공사장의 노동자 등 거친 일도 마다않고 해낼 수 있었던 것도 타고난 독심 덕분이었는데 1980년, 워싱턴 근처 볼티모어 한인회가 방송국을 만든다는 소식은 방송에 대한 정열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어렵게 출발한 ‘메릴랜드 한인방송’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질 지경에 이르자 석달치 밀린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방송국 운영권을 인수한 그는 밤새 프로그램 제작한 뒤 새벽엔 공사장으로 달려가 제작비를 벌어오는 二重苦를 감내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겨 ‘워싱턴 미주방송(약칭 KBC)’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틀을 갖추던 때, 한국은 언론통폐합에 따라 모든 언론이 ‘보도지침’에 따른 뉴스만을 내보내고 있었다. 미국에서 바라본 당시 한국의 상황은 그의 의분(義憤)을 자극했고 그는 신군부에 대한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미국 방송들의 속보를 인용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방송해서 동포들의 관심을 끌었다.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미국이니만큼 총영사관의 문제점이나 대한항공의 불친절 등을 상세하게 지적하자 동포들의 후원금도 늘어났다. 세계 정치1번지 워싱턴이기에 한국에서 많은 정치인과 명사들이 다녀갔고 이들을 빠짐없이 인터뷰하는 독심을 보였다. 비록 한을 안고 떠난 고국이지만 조국에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1987년, 본국

수재민 구호금 5만불이라는 거액을 7시간 생방송만으로 거뜬히 모을 수 있었던 것은 한인사회에서 미주방송이 차지하는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재미동포 대상 방송 외에도 미주 언론인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취재하고 연변한인방송국에 장비를 지원하는 등 활동영역도 넓어졌다. ‘독심’ 하나만으로 일궈 온 워싱턴 미주방송이 이리구러 35년을 바라보고 있다. 독심 만세!

글: 편집장



時論

담배 값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경수 (ANN)



MBC를 떠난 지 20년, 여의도시대에서 상암동시대로 변화된 MBC의 엄청난 발전에 대하여 후배들에게 축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MBC를 퇴직하고 기업체를 전전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담배 제조회사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의 흡연자 운동에 참여한지 1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긴 세월 흡연자들의 고충을 소개하다보니 흡연자 대변인으로 각인되어 버렸다.

그러나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마치 ‘담배를 피우는 시민단체’로만 인식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담배소비자 단체의 설립 목적은 흡연을 조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오랜 세월 담배 제조-판매를 주관해 오면서 양산된 千萬의 흡연 인구가 피해자인데 누구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담배 소비자를 보호하자’고 만들어진 단체다. 흡연자들이 사회 기초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캠페인 등으로 선도하면서 가급적 흡연 공간을 많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을 해소시키자는 시민운동이 담배소비자협회의 역할인 것이다. 담배가 사람에게 그토록 백해무익한 상품이라면 국가가 철저히 통제해야 할 것이지만 담배를 팔

아 얻어진 세수확보로 의료보험 적자를 보충하고 지방 자치단체는 담배로 얻어진 세원을 교육공무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담배 세원 사용에는 엄청난 모순이 있으나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크다.

정부는 담배판매로 얻어진 세금 7조원과 담배 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 6천억 원을 만들어 매년 몇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또 담배 값을 올려 매년 5조원의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말로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담배 값이 싸니까 흡연인구가 줄지 않아’ 올려야 한다는 명분이 확실하다면 가격 정책에 왜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근본 목적은 금연 효과 보다는 매년 담배판매로 얻어질 5조원이란 엄청난 재원 확보에 뜻이 있기 때문이다. 담배가 사람에게 독극물이라면 왜 허가해서 정당하게 판매하고 세금을 물리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은 없고 ‘흡연자 인구를 줄이기 위해 담배값을 대폭 인상한다면 흡연 인구가 줄 것’이라고 변명한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가놓고 말해 정부가 12조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중 조세 저항이 별로 없는(9년동안 올리지 못한) 담배값 인상으로 5조원 정도를 마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현재 흡연자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개인 건강을 이유로 50대 후반은 담배를 끊었고 주로 20대에서 40대가 흡연 인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월수입이 15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생산직이나 농어민들이다. 그렇다면 서민 중세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로 가고 젊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5조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말인가? 재원도 확보하고 금연 효과도 높일겠다는 생각은 이해가 되나 가격 인상 정책은 분명 국민에 대한 기만적 술책이다. 만일 담배 값이 인상되면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독성 저질 짝퐁’ 담배가 밀수되어 엄청난 탈세와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할 것인데 금연효과를 위해서라는 담배 값 인상 정책이 흡연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과오를 국가가 범하게 된다. 수백억 원의 탈세와 저질 담배를 흡연해야 하는 흡연자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솔직하게 담배 값 인상의 근본 목적을 밝히고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무엇을 선행할 것인지와 1천만 흡연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메뉴얼을 내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정부는 세금 구조의 모순, 지방정부 재원침해 문제 등 추가로 확보된 세금의 용처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풀어 주어야만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것이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자문위원)

ESSAY

구모토각(龜毛兎角)

구영회(보도)



깨달음에 이른 옛 성자(聖者)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 매우 흥미롭고 알쏭달쏭한 표현 하나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구모토각, ‘거북이 털과 토끼 뿔’이라는 暗示語다.

알다시피 거북이는 딱딱한 등껍질만 있을 뿐 실제로 털은 없다. 토끼는 종긋한 귀는 있어도 뿔은 없다. 세상과 삼라만상의 ‘본질’을 가리키는 이 말은, 그러면서도 전혀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 대고 있다. 사람이 가진 언어로써 표현은 하지만 근방을 건드릴 뿐 실제로는 딱히 꼬집어 낼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언어로써는 더 이상 직설적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동양화에서 달을 그리는 기법 중에 훈운탁월(烘雲托月)이라는 방식이 있다. 달을 직접 그리지 않는 대신 구름을 물들여서 저절로 달이 드러나게 하는 화법이다.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지만, 바람은 모양도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살

갓의 감각이나 또는 흔들리는 나뭇잎 그리고 흘러나는 머릿결이나 일렁이는 물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세상’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무쌍해서 도무지 한 순간도 고정된 실체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과연 말 한마디로 붙들 수 있을까. 정말로 어떤 것이 세상인지 언어를 갖다 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에 우리는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다.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글쟁이도 사람이라는 존재를 한마디 또는 몇 줄의 언어로 딱 부러지게 나타내기는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말을 하고 살지만 말로써 다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말로써 다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말로써는 다할 수 없으니 오히려 ‘그것’ 또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게 더 가까운 표현일지 모른다.

퇴직 후 줄곧 지리산 자락에 머물며 지낸다. 지리산은 섬진강이라는 아름다운 물줄기와 한데 어우러져, 이 나라 남쪽 강토 중에 가장 웅장하고 두드러진 풍광을 지니고 있다. 그 지리산과 섬진강을

시도 때도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실컷 느낄 수 있는 나는 행운아다. 가끔 섬진강변에 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은빛 물결을 조용히 응시하노라면 강물 따라 나도 하염없이 흘러간다. 그럴 때 나는 나 자신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느낀다. 강물은 한 순간도 쉼 없이 흐른다. 한 순간도 제 자리에 없는 물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이 지금 내 눈 앞에 버젓이 있다. 있기는 있는데 제 자리에 없고, 제 자리에 없는 데 분명히 있기는 있다. 진공묘유(眞空妙有)라 했던가. 텅 비었는데 있고 있는데 텅 비었다. 마치 하늘처럼. 당신과 나의 존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는 같은 발신지에서 쏘아져 나온 다양한 신호 같은 것일지 모른다. 애당초 하나인 곳에서 생겨나 제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져 잠시 머물다가 다시 하나인 곳으로 되돌아가는 ‘순환’일지 모른다. 내 삶의 올바른 방향이 동쪽이라면 나는 동쪽을 향해야 할 것이다. 동쪽으로 간 자는 동쪽에서 마감할 것이다.



탐방기

12시간의 가을 나들이

장영배(보도)



10월의 한복판, 16일의 아침은 천둥 번개소리에 잠을 깨고 가을비에 세수한 듯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비 오는 이른 아침, 정동 사우회 앞을 출발한 버스는 경부와 영동 고속도로를 따라 대관령(大關嶺)으로 달린다. 사우회의 가을철 문화 탐방이 시작된 것이다. 나들이 일정은 간단하고 명쾌했다. 당일치기로 대관령 목장과 오대산 월정사(月精寺)를 둘러보는 것이다. 규모도 버스 한 대에 맞춘 듯 40명이 채 안됐다. 평소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우들을 우선 선정했다고 사우회는 설명했다.

가을비가 차창에 부딪치며 빗살처럼 부서지는가

싶으면 어느새 붉은 해가 구름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금방 숨어버리며 장난을 친다. 사우들은 도란도란 오랜만에 만난 정담으로 버스 안은 파스했다. 서울을 출발한지 3시간 남짓, 대관령은 화창한 가을 모습으로 일행을 맞아주었다. 가을은 하늘을 찢어 비구름을 걷어 내고 바람타고 내려와 대관령을 흔들고 있었다. 동해전망대(1140미터)에 올랐으나 세찬 바람에 몸을 가눌 수 없었고 희뿌연 연무(煙霧)속에 동해와 강릉시내는 눈짐작으로만 가늠할 뿐이었다. 목책 길을 따라 사방으로 구비 구비 펼쳐진 산과 언덕은 장관이었다. 양지바른 목초지엔 양과 젖소가 풀을 뜯으며 한가로웠고 타조도 몸을 뒤통거리며 뛰놀고 있었다.

하늘은 푸르름으로 높고 태양은 가을을 익히는데 하얀 손을 돌리고 서 있는 풍력 발전기의 하염없는

손짓도 한 폭의 풍경화였다. 풍력 발전기(총 53기)는 강릉인구의 60%인 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늦은 점심을 마치고 오대산 월정사를 찾아 그 유명한 전나무 숲길에 들어선다.

숲 냄새가 가슴이 트이도록 상큼했고 맛이 달콤했다. 탄허(呑虛)스님의 자취가 어린 적광전(寂光殿) 부처님 앞에 넘죽 절하고 국보 팔각9층석탑을 돌아본다. 사선(斜線)으로 쏟아 붓는 오후의 햇빛은 빨강 노랑으로 숲을 맹렬하게 양생(養生)하고 사찰 경내와 주변은 온통 단풍잔치 준비로 들떠 있었다.

오늘 점심, 진부의 산채정식은 푸짐하지는 않았지만 조촐하고 맛있었고 메밀 막걸리가 일품이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의 나들이에서 MBC와 사우회가 새삼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다.



生活斷想

삶의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이해결(업무)



이 사회 속에 사는 우리는 자기 삶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 밑으로는 자식들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들을 언제나 의식하며 그 분들에게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고 싶은 바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세상만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한 인간이 한없이 구차스러워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없이 위대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정 부분만 부각시켜 볼 게 아니라 전체를 뽕뽕그려 크게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살아

있고 상식을 지켜나가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행동하든 나만큼은 기본(基本)을 지키겠다는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일, 직분이나 나이에 걸맞게 살아가는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이며 나아가 이 사회를 지탱해나가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직되고 경계하는 것이 아닌, 매사를 사랑으로 채워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해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 봐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주 재미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위해 (아마도 용돈을 쪼개서) 과자와

음료를 사가지고 와서 풀어놓고 먹으라고 하니까 동생은 신나게 먹으면서 다른 친구도 부르고 형도 같이 먹자고 소매를 잡아줍니다.

불과 한 두 살 차이 밖에 안 될 것 같은데도 형이 참 듬직해 보이고 형제간의 사랑이 참으로 극진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마디로 자기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생은 다름 아닌 상대방을 위한 인내, 배려, 상대방을 향한 친절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도, 더 아름답고, 더 밝고, 더 배려할 줄 아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 자신도 좀더 열린 마음, 열린 생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며 사랑과 용서와 화해, 그리고 기쁨을 함께 누리며 좀 더 따뜻한 눈길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삶의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간직하려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섬이 되는 '섬 여행' - 가거도, 그리고 만재도

장 명 호(편제)

스위스 여행가 Alain De Botton은 그가 쓴 <여행의 기술>에서 "여행할 장소에 대한 조언은 어디에나 널려 있지만 우리가 가야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힘들다. 하지만 여행의 기술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사소하지도 않은 수많은 문제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말한다. 여행이란 <어디>가 아니라 <왜>, <눈>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여행을 해야 한다.

막히고 부대끼고 짜증나는 여행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섬 여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3,153개의 크고 작은 섬 중에 사람이 사는 섬은 464개. 그동안 나는 소문난 많은 섬들을 별 생각없이 다녔다. 울릉도, 독도를 비롯해서 덕적도, 장봉도, 시도, 멀게는 한산도, 증도, 보길도, 소록도 등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다녔고 여행의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따라 다녔다. 제주 올레길이 어떻고, 산티아고 순례길이 어떻고 하는 것처럼....올해부터는 확실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섬 여행'을 추진하기로 맘먹고 첫 번째 순서로 최서남단에 있는 섬 가거도(可居島)와 만재도(晩才島)를 찾았다.

굳이 이곳을 1차 여행지로 잡은 이유는 목포에서 145키로, 고속 페리로 4시간 반이 걸리는 멀고 먼 뱃길이라 나이가 더 들기 전 건강할 때 다녀볼 수 있는 여행지라서다. 가거도로 떠나기 전 지상파 예능프로에 이미 크게 소개되어 찢찢한 구석도 있었지만 너무 멀어선지 흑산도에서 승객들이 대부분 내리고 거기서도 2시간 더 가는 가거도는 전문 낚시꾼들만 더러 보였다. 가거도는 신중동국여지승람

에 "가히 아름답다고 할 만하다"는 뜻의 가가도(可佳島)로 표기되었다가 1800년경 나주 임씨가 최초로 들어가 살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 하여 가거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항리 2구 이장대에 머물면서 가거도 제1의 경관 섬등반도의 절경에 취해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까지 태양을 붙잡고 있는> 일몰(사진)을 감상하며 상념에 잠겨 볼 수도 있다. 백년등대, 동개해수욕장, 짝지협곡, 땅재전망대, 회룡산 등 가거8경이라 명명한 관광명소도 좋지만 이런 명품절경보다 단연 난대수림 독실산(續實山 649m) 오르는 길을 가거도 제1명소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동해에서 울릉도 성인봉(984m)이 최고봉이라면 서해에선 단연 독실산이 최고봉이다. 독실산이 등산객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목포에서 4시간 반이라는 뱃길과 등산로다운 등산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로 선정된 독실산 난대수림길은 후박나무, 구실잣나무, 산팽나무 등 난대성 활엽수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후박나무숲이 하늘을 막아 햇빛까지 차단된 이끼 가득한 독실산 난대 숲길에서 만나는 희귀한 도마뱀, 집이 없는 달팽이 등 가장 아름다운 숲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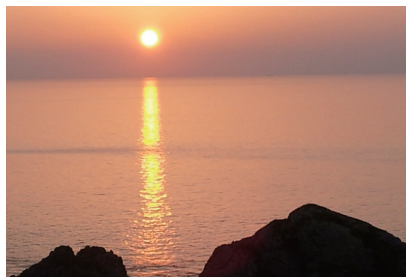
선정되는데 전혀 손색이 없었다.

빠어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섬이 가거도라면 만재도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 아닌 마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40여 가구가 웅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섬이다.

가거도에서 목포로 돌아오는 길에 들르는 만재도는 선착장이 없어 종선(從船)이 나와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을 싣고 내린다. 가거도보다 40여 분을 더 가야 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은 거의 없고 폐교가 된 만재분교를 개조하여 만든 방 4개를 '만재콘도'라 명하고 방값, 밥값 복잡한 계산 없이 한 사람당 1박3식에 4만원 받는데 마을 부녀회장이 똑딱 만들어 내는 즉석 견절이나 해초무침 등 반찬솜씨가 일품이다. 문명과 동떨어진 만재도는 그야말로 적막감이 감도는 '자연 덩어리' 그대로의 모습이다.

마구산과 물생산을 오르는 길은 사람 키 만큼 자란 잡풀과 산죽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고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마구산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우리가 잃어버린 고향과 오래 전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나게 만들고 살아온 삶을 되새김해 보는 시간을 안겨준다.

다시 만재도를 찾는다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아무 생각없이 머리를 하얗게 비우고 나 자신을 만재도의 나무와 바다와 바람에 맡기고 싶다.



고객과의 신뢰, 믿을 수 있는 기업 동화AV(주)

다큐멘터리&보도용 조명이 필요 없는 카메라

HDL-4500은 일반 카메라와 다르게

매우 높은 Sensitivity를 구현하기 위해 3CMOS를 탑재했다.

Ikegami사가 추천하는 사용 용도

1. 보도용 카메라
 2. 다큐멘터리 촬영
 3. 조명을 쓰기 힘든 예능 프로그램
 4. 파노라마용 카메라
- * KBS 납품



HDL-4500



HDL-5500

With Viewfinder, Handle & Shoulder Pad (Option)



2014 SOCHI Olympic 30대 사용

슈퍼 슬로우 초고속 카메라 Key Features

- + More than 10 times framing rate
- + High Capacity 96GB Memory
- + Recording When in Playback
- + Playback Without Server
- + Continuous Live Video Output
- + Flicker Correction Function
- + Flexible Recording Speed
 - 24 to 500 fps 1fps step (Full Mode)
 - 24 to 1000 fps 1fps step (Half Mode)



동화A/V주식회사
DONG-HWA A/V CO., LTD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 B동 1801~2호
Tel:02)783-4055-6, Fax:784-9941 e-mail:sales@dhav.co.kr

SHOTOKU
BROADCAST SYSTEMS

Ikegami

